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프리비엔날레) II 《강령을 위한 노트》

THE 13th SEOUL MEDIACITY PRE-BIENNALE II Notes for a Séance

2024. 11. 30. 1PM – 6PM

발표 SMB13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

상영 작가 구보타 시게코, 마야 데렌, 브루스 코너, 샤나 몰튼, 인주 첸, 조던 벨슨, 케네스 앵거, 펠린 탄과 안톤 비도클

Presentation SMB13 Artistic Directors Anton Vidokle, Hallie Ayres and Lukas Brasiskis

Screening Artists Bruce Conner, Jordan Belson, Kenneth Anger, Maya Deren, Pelin Tan and Anton Vidokle, Shana Moulton, Shigeko Kubota, Yin-Ju Chen

본 행사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가 다가오는 비엔날레의 기획적 상상에 관한 주요 개념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예술감독팀의 발표와 각각의 소주제에 상응하는 작품 상영으로 구성된 본 행사는 역사, 지리와 문화가 교차하는 신비주의, 오컬트, 예술, 기술과 사회의 교차점을 탐구한다. 세 가지 소주제는 신비주의, 소멸과 불멸의 관계, 존재와 부재,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탐험하는 메타포로서의 강령과 테크노 폴리틱스의 역할 등의 개념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This event introduces ideas informing the curatorial imaginary for the 13th edition of the Seoul Mediacity Biennale. Through three presentations and corresponding screenings, the artistic directors will explore the intersection of mysticism, the occult, art, technology, and society across histories, geographies, and cultures. The event will share and discuss concepts such as: the relationship of mysticism, death, and immortality; the séance as a metaphor for navigating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or conscious and unconscious; the role of technopolitics; and other key ideas.

1부. 죽음, 예술, 영성

안톤 비도클은 지난 역사에서의 신비주의적이고 영성적인 실천에서 죽음을 중심에 둔 사고방식과 불멸의 추구, 그리고 이것이 예술의 발전, 도상학과 언어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 발표는 신비주의 전통에서 생(生)과 사(死)의 관계가 어떻게 강신술 등의 비밀스러운 철학을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거꾸로 근대화 시기를 거쳐 동시대까지 예술의 변형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비도클은 인간 소멸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 음악, 문학, 시학, 시네마와 건축에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을 가져와 종교, 기술, 과학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을 위한 잠재성을 보게 했던 사변적인 철학적 운동으로서 '우주론' 개념을 소개한다.

Part 1. Death, Art, and Spirituality

Anton Vidokle will speak to the centrality of death and the pursuit of immortality in mystical and spiritual practices throughout history, and the impact this has made on the development, iconography, and language of art. The presentation will focus on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in mystical traditions has shaped key aspects of spiritualism and esoteric philosophies, and how these ideas, in turn, transformed the arts during modernity and into the present. In this context, Vidokle will introduce the concept of *cosmism*, a speculative philosophical movement which saw the potential for religion, technology, science, and new forms of social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imits of human mortality, inadvertently triggering an entirely new imaginary for art, music, literature, poetry, cinema, theater, and architecture.

케네스 앵거, 〈죽음〉, 2009. 52초

미국 아방가르드 영화의 대가로 알려진 케네스 앵거가 연출한 52초 길이의 단편 영화로 죽음과 꿈에 관한 작품이다. 본 작품은 베이징에 기반한 한 영화 제작사가 앵거를 포함한 41명의 영화감독에게 같은 길이의 단편 작품을 커미션하여 제작되었다. 오컬트와 잠재의식에 관한 앵거의 전형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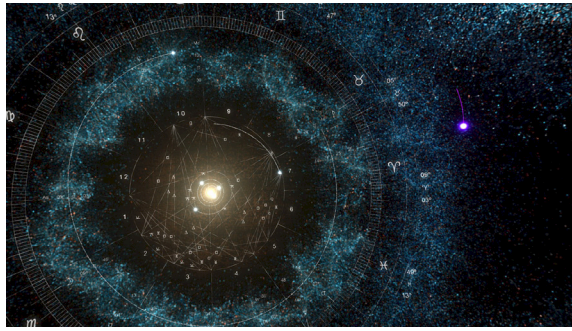


Kenneth Anger, *Death*, 2009, 52 sec

A fifty-two second film by the great American avant-garde filmmaker on the subject of death and dreams. The work was commissioned by a Beijing-based film studio, among contributions of the same length from 41 other filmmakers, and is typical of Anger's work in its exploration of the occult and the subconscious.

인주 첸, <웁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리라.>,
2023. 16분

13세기의 페르시아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어머니의
죽음을 돌아보며 고통을 극복하는 인간
치유와 명상의 과정을 다룬다. 파운드
푸티지, 작가의 개인적인 여행 기록,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치유술을 가진
예언자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케이론에
관한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본 작품은
어떻게 영적 실천이 개인의 주관성을 넘어
우주적 관점에서 생과 사를 인식하게
하는지 질문한다.



Yin-Ju Chen, *Somewhere Beyond
Right and Wrong, There is a Garden.
I Will Meet You There*, 2023, 16 min

Drawing on a poem by the thirteenth-
century Persian poet Rumi, this film
is an account of a healing process
and a meditation on human suffering,
reflecting on the passing of the
artist's mother. Combining found
footage, documentation from the
artist's own travels, and animations
of the mythological centaur Chiron
(renowned as a healer and prophet),
Somewhere Beyond Right and Wrong...
asks how spiritual practice can
help us to move beyond individual
subjectivity to perceive life and death
from a cosmic perspective.

펠린 탄과 안톤 비도클,
<길가메쉬: 심연을 본 그녀>, 2022. 47분

고대의 도시 마르딘, 하산케이프, 다라
근처의 티그리스 강 유역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의 새로운 버전으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여정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생과 사, 우정과
사랑, 불멸에 관한 명상을 다루는 영상은
수메르 우주론과 우주론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되었으며, 알바 노트가 오리지널
스코어 작곡가로 참여하였다. 튀르키예의
디아르바키르 아메드 극장의 여성
배우로만 캐스팅하였고, 쿠르드어와
터키어로 제작되었다.



Pelin Tan and Anton Vidokle,
Gilgamesh: She Who Saw the Deep,
2022, 47 min

Filmed on the banks of the Tigris
River, near the ancient cities of
Mardin, Hasankeyf, and Dara, this
new version of the oldest extant
literary work takes us on a journey
through time and space. Inspired
by Sumerian cosmology as well as
the philosophy of cosmism, and
accompanied by an original score
by Alva Noto, *Gilgamesh: She Who
Saw the Deep* is a meditation on
questions of living, death, friendship,
love, and immortality. This film is in
Kurdish and Turkish, and features an
all-woman cast of actors from the
Amed Theater in Diyarbakir.

2부. 비가시성의 중재: 정신적이고, 시네마적이며, 정신분석학적인 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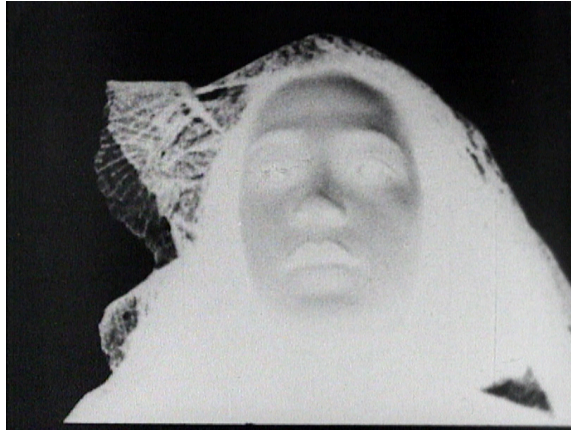
루카스 브라시스키스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서구에서 널리 실천되었던
정신적 강령, 시네마적 강령, 정신분석학적 강령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다른
의미를 살펴본다. 이처럼 강령에 관한 여러 해석은 '부재'에 관한 비평적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다. 숨겨지고, 부재하거나, 이해될 수 없는 것에
달라 그것을 가시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의식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모든 강령 개념에서 핵심적인 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매개 방식은 생과 사,
의식과 무의식, 실재와 상상이라는 다른 세계 간의 경계에서 작동하는 실천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이번 발표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배경을 살펴보며
비가시적이고, 숨겨지거나, 부재하는 것에 접근하는 방법이자, 존재의 다양한
영역에 일시적으로 접속되는 방식으로서 영혼, 영상된 이미지나 억압된 생각 등
강령에 관한 여러 형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Part 2. Mediating the Invisible: Spiritual, Cinematic, and Psychoanalytical Séances

Lukas Brasiskis will explore three different meanings of the
concept of the séance—spiritual séance, cinematic séance, and
psychoanalytical séance—widely practiced in the West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and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ies.
These interpretations of the French word are unified by the critical
concept of *absence*. In each iteration of séance, a central act is
the attempt to reach what is *hidden, absent, or unintelligible*, and
thereby to make it *visible, accessible, or conscious*. This mediation
is crucial to understanding how these practices operate on the
boundaries between different worlds—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the real and imaginary.
Through unpacking each of them, the presentation will suggest
that—whether engaging with spirits, projected images, or repressed
thoughts—each form of séance becomes a way to access what is
invisible, hidden, or absent, momentarily bridging different realms
of existence.

마야 데렌, <변형시간의 의례>, 1946. 15분

마야 데렌은 자신의 네 번째 영화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영화만의 독특한 가능성과 의례적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형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느낀다. 1946년에 만들어진 이 실험적 무성 단편영화는 프레임 고정과 슬로우 모션 같은 전위적인 전략을 활용하여 춤의 본질을 영화에 담아내는 동시에 버려진 의례로 인한 거절의 두려움과 표현의 자율성을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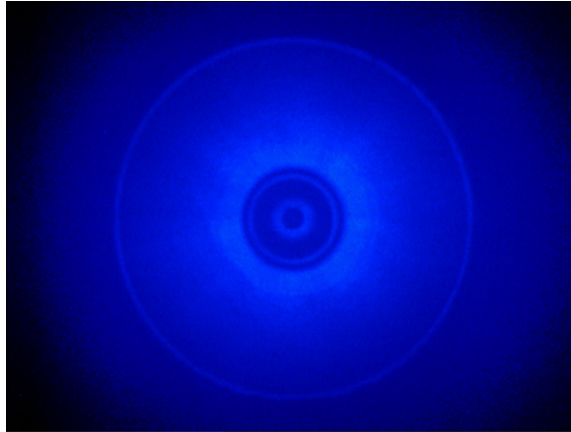


Maya Deren, *Ritual in Transfigured Time*, 1946, 15 min

By her fourth film, the pioneering director Maya Deren felt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unique possibilities of cinema to express time, and that the form should be ritualistic. This 1946 experimental silent short uses vanguard strategies such as freeze framing and slow motion to capture the essence of dance on film, at the same time explores the fear of rejec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bandoning ritual.

조던 벨슨, <사마디>, 1967. 5분

조던 벨슨은 이 작품에서 요가와 티베트 불교에 관한 자신의 연구와 실천이 사마디 창시에 미친 영향을 밝힌다. 이 작품은 주체와 대상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사마디를 향한 의식의 움직임과 사마디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밝은 백색광 쿤달리니의 신성한 힘을 드러내는 상태로서 호흡과 마음을 뜻하는 아트마의 융합, 즉 요가 명상의 원리에서 영감을 받았다. 벨슨은 땅, 불, 공기와 물과 같은 요소에 관한 묘사와 상응하는 사마디의 색을 찾는데 티베트 불교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영감을 얻었다.



Jordan Belson, *Samadhi*, 1967, 5 min

Belson notes the influence of his study and practice of Yoga and Tibetan Buddhism on the creation of *Samadhi*. The film is inspired by the principles of yogic meditation: the movement of consciousness towards samadhi (union of subject and object), the fusion of atma (breath and mind), a state which reveals the divine force of kundalini, a bright white light we discover at the end of *Samadhi*. *The Tibetan Book of The Dead* is one of inspirations behind Belson's approaches in *Samadhi*, corresponding to descriptions of the elements of Earth, Fire, Air and Water in the book.

브루스 코너, <버섯을 찾아서>, 1959-67/1996. 14분

브루스 코너는 사이키델릭 여행기 영상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모습과 '버섯 사냥' 여행 중에 포착한 오악사카 시골의 풍경을 교차로 보여준다. 이 여행에서 적어도 한번은 나중에 환각제의 주요 지지자가 된 티모시 리어리가 코너 부부의 여행에 동참하였다. 작품은 시각적 방향 감각의 상실과 잠재의식적 메시지를 생성하는 빠른 속도의 편집과 스트로브 효과로도 유명하다 (코너는 광고 대행사에서 이를 차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Bruce Conner, *Looking for Mushrooms*, 1959-67/1996, 14 min

In this psychedelic travelogue, Conner combines street views of San Francisco with scenes of rural Oaxaca captured during his "mushroom-hunting" excursions. On at least one of these trips, he and his wife were joined by Timothy Leary, who would go on to be a major proponent of psychedelic drugs. The work is notable for its rapid-fire editing and strobe effects to generate visual disorientation and subliminal messages (which, Connor noted, were appropriated by advertising agencies).

3부. 동시대의 테크노 신비주의와 불협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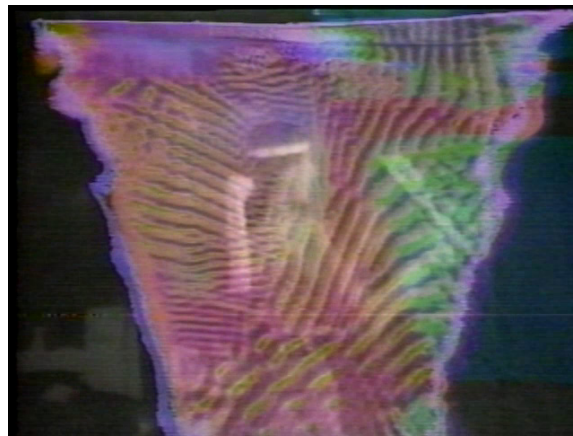
할리 에어스는 동시대 기술, 영성과 마음의 자동화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에어스는 어떻게 포스트포드주의적 자본주의가 신체의 자동화에서 마음과 영혼의 자동화로 이행했는지를 분석하며, 노동은 물론 의식, 영성과 문화적 상대주의를 형성하는데 기술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본 발표는 자연적 현상을 개별화하고 분류하는 서구의 이분법적 충동을 억제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설명할 수 있는 우주와 합리성을 무시하는 경향 사이에 드리워진 장막을 가로지르는 상호 연결성을 전제로 하는 ‘영혼의 기술’을 제안한다.

Part 3. Contemporary Techno-Mysticism and its Discontents

Hallie Ayres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mporary technology, spirituality, and the automation of the mind. Analyzing how post-Fordist capitalism has shifted from the automation of the body to the automation of the mind and spirit, Ayres illuminates how this transition marks a significant change in how technology shapes not only labor but also consciousness, spirituality, and cultural relativism. By highlighting practices that seek to mitigate the Western impulse toward compartmentalizing natural phenomena into discrete taxonomic dichotomies, the presentation will offer cursory proposals for a technology of the spirit that takes as its foundation the fundamental premise of interconnectedness across the veils between the known and the unknown, the seen and the unseen, the explainable universe and its penchant for defying rationality.

구보타 시게코, 〈나바호 스카이를 위한 비디오 걸즈와 비디오 송즈〉, 1973. 26분

일본인 작가 구보타 시게코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친리에서 예약을 통해 만난 나바호 가족과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며 초현실적인 비디오 일기를 쓴다. 이 영상에서 작가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사막을 건너 가장 가까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노래와 춤, 아이들의 장난과 지역의 로데오의 영상 푸티지를 교차로 보여준다. 영어를 쓰는 나바호인과 일본인으로서 작가 간의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구보타는 순수한 개성의 힘을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들과 교감한다.



Shigeko Kubota, *Video Girls and Video Songs for Navajo Sky*, 1973, 26 min

Japanese artist Shigeko Kubota narrates this surrealistic video diary of her month-long sojourn with a Navajo family on a reservation in Chinle, Arizona. She talks to the women as they cross the desert in a horse-drawn carriage to fetch water from the nearest well, and captures footage of tribal songs and dances, children's pranks and a local rodeo. Despite the language barrier between the Japanese Kubota and the English-speaking Native Americans, the artist befriends her subjects through sheer force of personality.

샤나 몰튼, 〈마음의 장소 사유의 흐름〉, 2014. 12분

이 영상은 초현실주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페미니스트적 함의를 엮어 동시대 정신의 뉘앙스를 탐구한다. 몰튼의 작품들은 자립 문화의 복잡성, 테크노 신비주의를 통한 정신적 가치의 탐구,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개인의 안위를 위한 의례 행위에 담긴 희극적 부조리 등을 파헤친다.



Shana Moulton, *MindPlace ThoughtStream*, 2014, 12 min

Weaving feminist undertones with surrealist imagery and sound, Shana Moulton's work explores the nuances of the contemporary psyche. Her films delve into the intricacies of self-help culture, the quest for spiritual meaning through techno-mysticism, and the often comedic absurdity of personal wellness rituals in the times of global capitalism.